

雅亭의 아동관과 그 교육방안

김 태 오*

《 목 차 》

- | | |
|---------------|----------|
| I. 머리글 | (1) 교육내용 |
| II. 아동관과 교육이념 | (2) 교육방법 |
| (1) 아동의 성향 | IV. 맺음말 |
| (2) 아동교육의 이념 | 참고문헌 |
| III. 아동교육의 방안 | |

I. 머 리 글

본 논문에서는 아정 李德懋의 아동관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그의 교육방안을 고찰한다.

이덕무¹⁾(1741~1793)는 정조때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던 인물로서 북학파에 속한 실학자이다. 한때 연경에 가서 청나라의 문물을 눈으로 직접 살펴보았고, 당시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등과 함께 그는 한문학의 사대가(漢學四家)로 이름을 떨쳤다.(김종권, 1983, p.9) 『청장관전서』는 71권(33책)으로 된 방대한 유고집이다. 여기서 ‘청장관’은 아정, 동방일사, 형암 등과 함께 그가 사용한 호를 가리킨다. 이 유고집 가운데 13-14책(27-31권)인 『士小節』은 그의 교육관을 담고 있다.

* 경북대학교 강사.

- 1) 아정의 사람됨은 박지원의 말(『아정유고』의 행장)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세상에서 이덕무를 논하는 사람들이 그는 품행이 첫째이고, 식견은 두번째이며, 많이 듣고 기억을 잘하는 것은 세번째이고, 문예는 다만 네번째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문예에도 내가 미칠 수 없음이 이와 같으니, 이덕무의 품행은 따라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아, 이덕무는 어려서 천성이 단방하여 함부로 교유하지 않았고, 문답고 책읽기 40여년에 이름이 마을 밖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찌기 한사람의 현달한 선비도 알지 못했다. 허물어진 집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거친 양식이 여러번 떨어졌지만 ‘배고프다’(飢)와 ‘춥다’(寒)는 두 글자는 입밖에 내지 않아서 비록 처자식일자라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앓고 눕고 기거함에 일정한 거처가 있었고, 책과 책상을 정돈해 놓았으며, 여럿이 어울려 종일토록 있어서 늑늑하고 자랑하지 않았으며 친압하게 사귀지를 않았다. 부모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섬겨 기뻐하고 사랑하는 빛이 얼굴모습에 드러났다.”

『사소절』이 자기교육과 가정교육의 취지에서 저술된 것임을 그 서문 가운데서 아정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士典(선비의 본보기)은 자신을 깨우쳐 되도록 허물이 적게 할 목적을 위함이고, 婦儀(부녀자의 예절)는 집안 부녀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며, 童規(어린이의 규범)는 자제들을 훈계하기 위함이다.” 사전, 부의, 동규의 세 편으로 된 『사소절』 전체 924장 가운데 ‘동규’편은 動止(39장), 教習(38장), 敬長(32장), 事物(31장) 등 4개의 절(13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사소절』에서도 연구의 주제에 직결되는 ‘동규’편을 중심으로 다룬다.

지금까지 아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실학사상에 초점을 둔 접근과 교육사상을 조명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한기언(1965), 유봉호(1975), 이성무(1981) 등은 아정의 교육사상을 연구한 학자이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간단한 소개에 그치고 있거나 너무 포괄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전통사상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임이 지적된다. 이런 전지에서 아정의 아동교육관의 검토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비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정의 어린이교육관에 대한 여기서의 고찰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질문에 관한 답을 찾는 일이다. 첫째로 아정은 어린이의 성향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둘째로 아정은 어린이 교육의 이념을 어디에 두는가? 셋째로 아정은 무슨 내용으로 어린이를 교육하려는가? 넷째로 아정은 어린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상관아래서 이러한 물음(접근)들을 통하여 아정의 교육적 사고를 이해하고자 한다.

I. 아동관과 교육이념

(1) 아동의 성향

아정은 동규 첫머리에서 “하늘이 부여한 성품을 조금도 사특하게 하지 말고 어버이가 주신 몸을 조금도 어긋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사람의 타고난 성품(본연의 성)에 관해 형이상학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기질의 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을 열거한다. 이는 한편으로 그가 유교 일반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음과 다른 한편으로 실제의 사실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내는 실학의 이념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정은 어린이의 행동특성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 비록 이는 ‘동규’편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다만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단편적으로만 제시될 뿐이지만, 논자의 분석에 따르면, 아동의 습성에 대한 아정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구분하여 이

해된다.

첫째, 아동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조급하고 들뜨기 쉬운 버릇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의 행실은 완전하지 못하며 하는 일이 굳건하지 않게 된다.(동지: 2)²⁾ 구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은 흔히 말을 급하게 하고 걸음을 빨리하며, 배고픔을 참지도 참지 못하는 등의 급한 성질을 드러내기도 한다. 어린이들의 경솔한 행동 가운데서도 특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눈을 깜박거리고 말을 더듬는 것을 흉내내는 일이다. 말소리나 용모에 고칠된 습관이 있는 사람을 오랫동안 장난삼아 흉내내는 경우 흔히 그를 닮아서 고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교습: 20)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경솔한 아이가 공부할 때 보여주는 행동을 아정은 다음과 같이 실감있게 묘사한다.

아이가 스승에게 막 글을 배울 때 마음이 조급하여, 스승의 뜻풀이하는 일에 염증을 내어 손으로 책장을 쥐고서 얼른 넘기려고만 한다. 심지어 스승의 설명이 끝줄에 이르기도 전에 빨리 책장을 넘겨버리는가 하면 글 뜻을 잘 모르면서도 질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일이 끝나자 마자 얼른 책을 덮어 버린다.(동지: 16)

둘째, 아동은 놀기를 좋아한다. 여기서 뛰놀기를 좋아함을 공부하기를 싫어함을 나타낸다. “일찌기 보전대 놀기나 좋아하고 공부는 힘쓰지 않고서 능히 통달한 선비가 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교습: 24) 이런 견지에서 아정은 놀이의 교육적 가치(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듯 하다. 즉 그에 있어 놀이는 공부의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놀이는 힘들여 해야할 공부를 망치는 비교육적이며 게으른 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아정은 “경솔함을 바로 잡고 게으른 점을 깨우쳐야 한다”³⁾고 한 張橫渠의 말이야말로 아이들이 특히 경계할 사항임을 역설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이러한 아정의 견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어린이들의 버릇은 거의 다 글읽기를 싫어하고 어른이 시키는 일하기는 부끄러워하면서 모든 오락에 있어서는 권하지 않아도 잘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부지런히 한다. 장기, 바둑, 쌍륙, 골패, 투전, 윷놀이, 돈치기, 종정도놀이, 돌공던지기, 팔도행성 등을 다 환히 안다. … 이런 놀이들은 다 정신을 소모하고, 의지와 기개를 어지럽히며, 공부를 그만 두게 하고, 바른 품행과 절도를 잃게 하고,

2) ‘동지’의 두번째 장을 가리킨다. 이하의 표시도 동일하다.

3) ‘矯輕警惰’(교습: 36).

경쟁을 조장하고, 나쁜 기질을 기르며, 심지어는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죄를 저서 형벌을 받는 데까지 이른다.(사물: 4)

세째, 아동은 탐내는 경향이 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음식을 탐내는 일이다. 여기서 아정은 “먹고 마시는 것을 욕심내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긴다”⁴⁾는 孟자의 가르침을 환기시킨다. 탐내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소박한 옷보다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일(동지: 6), 연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종이를 흠치고 어머니의 실을 흠치는 행동(사물: 9), 함께 공부하는 어린이의 종지와 붓을 빼앗아 독차지하고 자기의 종지와 붓은 아까와하여 잘 간직하여 두는 일(사물: 12) 등이 생긴다. 아정은 『사소절』 서문에서 일체 밖(외물)으로부터의 유혹을 금지시킨 자신의 부친의 가르침을 들고, 스스로 어린시절 두 누이동생과 함께 살 때 ‘꽃 한가지를 얻으면 반드시 그 꽃을 셋으로 나누었고, 한개의 과일을 얻으면 반드시 그것을 셋으로 나누어 먹으면서 다투어 본 적이 없었다’(사물: 7)고 되돌아보면서 그의 자녀들은 형제 사이에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탐내지 말고 고루 나누어 가지도록 당부한다.

어린이는 욕심이 많으니 그런 마음을 낼 때마다 금하여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무릇 남의 의복, 그릇, 좋아하는 물건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고, 흠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바꾸지 말고 감추지 말 것이다. 무릇 자기의 물건은 인색하지 말고 남의 것 보다 못함을 한탄하지 말 것이다.(사물: 6)

네째, 아동은 속이는 일이 있다. 부형과 스승을 속이고 양심을 해치는 어린이의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 가운데는 글을 읽을 때 글읽는 회수를 표시하는 산 가지를 속여서 넘기는 것과 병을 핑계삼아 글을 읽지 않는 것(교습: 23), 배웠던 글을 돌아 앉아서 월 때(背誦) 잔글씨로 베껴 가지고 몰래 보고 외우는 것(교습: 14), 매월 글을 짓게 하는 성균관과 사학의 月課에서 남의 손을 빌어서 글을 지어 올려 사관을 능멸하는 것(사물: 5)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아정은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 다만 세상의 교육이 쇠퇴하여 어린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지적에 그친다.(사물: 2) 이 설명은 그가 성인중심의 질서의식에 치우쳐 있음을 나타낸다.

어린이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친구들을 모아 시끄럽게 떠들며 못할 짓이 없이

4) ‘飲食之人則人賤之’(경장: 9).

놀다가 어른의 기침소리가 들리면 창문을 뚫어 엿보고는 걸음을 가만가만 걷고 말을 조용조용히 하며 억지로 글을 읽는 체하는데 어른을 그렇게 기만할 수가 있겠는가. … 대법한 사내아이들은 이처럼 속이고도 태연한데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소인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동지: 36)

이상에서 보듯이 아정의 아동관은 부정적인데 그 특색이 있다. 그런데 경솔하고 게으르며 탐내고 속이는 어린이들의 행동이 타고난 본성의 결과가 아니다. 어릴 때는 아직 주견이 없으며(사물: 3), 어린아이의 심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경장: 5) 그러므로 어린이가 보여주는 그릇된 행동은 그가 보고 듣는 것이 좋은 것이 없는 현실에서 형성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아정은 가르침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믿는다.

(2) 아동교육의 이념

앞 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어린이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사실적이고 또한 부정적이다. 그는 어린이의 본성을 악한 것이라고 규정지은 바 결코 없지만 그릇된 습성에 입각하여 아동을 이해함으로써 子の ‘성악설’을 상기시킨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성정은 아름다운 빛깔, 소리, 맛을 좋아하고 자기의 이익과 안일을 추구한다.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선한 측면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하여 다스려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은 분명하며 그 착함은 인위(교육)의 결과이다”.⁵⁾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곧게 다듬어야 할 ‘굽은 나무’, 예리하게 날을 세워야 할 ‘칼’, 교정되어야 할 ‘활’ 등으로 비유한다. 비슷한 견지에서 아정 또한 교육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갓난 망아지는 착실하고 엄격하게 길들이지 않으면 좋은 천리마가 될 수 없고, 어린 소나무는 잘 가꾸어 북돋우지지 않으면 훌륭한 제목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식을 두고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버리는 것과 같다.(교습: 2)

아정에 따르면 세상의 인심은 날로 나빠지고 도의가 갈수록 퇴폐해지는 원인이 어린이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은데서 비롯된다.(사물: 3) 무지몽매한 어린이들을 바른 도리로써 가르치고 기르는 일 즉 교육이야말로 개인과 사회를 바로잡는 길이다. 그렇다면 아정은 어린이 교육의 이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은 궁극적

5) ‘人之性惡明矣, 其善者僞也’(『순자』, 성악편).

으로는 선비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어린이의 기상은 영리하되 경솔하지 않고, 순박하되 유약하지 않아야 하며 되
바라지게 똑똑해서는 안되고, 다만 묵직하여 장래성이 있어야 한다.(동지: 1)

먼저 어린이교육의 이념으로써 선비됨을 살펴 본다. 아정은 언제 어디서나 선비
된 정신을 간직해야 함을 역설한다. “비록 가난하고 천하여 문지기가 되고 고용살
이를 하고 농사, 의원, 장사, 공장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몸을 닦고 스스로 삼가하
는 선비가 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교습: 1)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九容’을 잘 단속해야 한다.(교습: 20) 여기서 말하는 아홉가지의 몸
가짐이란 ‘발은 무겁게, 손은 공경스럽게, 눈은 단정하게, 입은 신중하게, 소리는
고요히, 머리는 곧게, 숨소리는 숙연하게, 설 때는 의젓하게, 낮빛은 썩씩하게⁶⁾하
는 것을 가리킨다. 율곡의 「격몽요결」 제3장 지신(持身)에서는 구용과 함께 ‘九思’
가 강조된다. 아홉가지 생각은 원래는 『논어』에서 孔子가 한 말이다.

아홉가지 생각이라는 것은, 보는 데는 밝게(明)하기에 유의하고(사물을 볼 때
편견이나 욕심으로 가린 것이 없으면 밝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듣는 데
는 밝게(聰)하기에 유의하고(들을 때 가린 것이 없으면 밝아서 들리지 않는 것
이 없다), 낮빛은 온화하기에 유의하고(낮빛을 부드럽게 하여 성난 기색을 없
게 할 것), 모습은 공경스럽기(恭)에 유의하고(자신의 태도에 단정치 않는 데
가 없게 할 것), 말을 정성스럽도록 유의하고(한 마디를 하더라도 다정스럽고
미덥게 할 것),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럽기(敬)에 유의하고(한 가지 일을 하더라
도 다 공경스레 삼가서 할 것), 의심스러우면 물기를 잊지 말고(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깨달음이 있는 이에게 잘 물어서 모르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 것), 분할 때에는 환난이 있을 것을 유의하고(화를 내면 반드시 응보가 있
을 것이니 이성으로 스스로 견뎌 낼 것), 이득을 보면 의(義)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재물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의리와 이익의 분별을 밝혀서 의리에 맞아야
만 그것을 취할 것)는 것이다.(이이, p.98).

그러면 선비에 대한 아정의 견해는 어떠한가? 논자(1991, pp.2~5)는 아정의 선
비관에 나타난 선비의 사람됨을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이는

6)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이이, 1972, p.399 또는 p.404).

『사소절』 3편 가운데 선비교육론에 해당되는 ‘士典’편의 관련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도출한 결과이다. 선비는 그의 아동교육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해당한다.

- (1) 선비는 仁을 행하는 사람이다.
- (2) 선비는 識見을 확립하는 사람이다.
- (3) 선비는 中庸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4) 선비는 바르고 굳센 사람이다.
- (5) 선비는 진솔한 사람이다.
- (6) 선비는 경제적 자립에 힘쓰는 사람이다.

훌륭한 선비의 품성을 어질고 식견이 있으며 중용을 향하고 강건하여 진실하고 근로에 힘쓰는 태도에서 찾는 아정의 선비관은 유학 일반의 이상적 인간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아정이 보여 준 선비관은 언제나 ‘진솔할 것’과 ‘부지런히 알뜰하게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는 점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선비자질의 규정은 당시의 시대정신인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이란 실학의 계몽적인 관점에 접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I. 아동교육의 방안

(1) 교육내용

아정은 어린이로부터 경솔하고 나태하며 탐내고 속이는 행동을 주목한다. 이것은 그의 아동관이 부정적 현실적임을 보여준다. 바람직하지 못한 데에서 아동을 훌륭한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아정에 따르면 아동을 선비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절교육이 필요하다. 예절 밖에도 그는 독서, 위생, 안전 등을 구체적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절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예절의 근본정신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고, 예절의 기본형식이 겸손과 질서에 있다. 예절은 사람됨의 척도이고 공동체 화합의 바탕이므로, 예절생활은 곧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된다.(김윤환, 1991, p.5) 아정이 보기로 예절교육은 어린이가 자라서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크다.

한번 생각하는 데도 다 법칙이 있어야 하고, 한번 행동을 하는 데도 다 격식이

있어야 한다. 그 의복을 정제하고, 그 음식을 절제하라. 어려서 표준이 없으면 자라서 더욱 기울어지는 법이다.(동규: 첫머리)

어린이의 예절교육은 사소한 일상 예절을 잘 실천하는데 역점을 둔다. “조그만 행실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을 이루지 못한다”.⁷⁾ 작은 행실을 살펴서 되도록 허물을 적게 하는 것이 소학공부의 길임은 다음과 같이 『예기』에 밝혀져 있다.

13세가 되면 『소학』 공부에 들어가서 작은 예절을 견습하고 작은 의리를 실천하며, 20세가 되면 『대학』 공부에 들어가 큰 예절을 견습하고 큰 의리를 실천한다.(동규: 첫머리)

아정은 『소학』을 저술한 朱子의 동기 또한 작은 예절에 관심을 가져서 날마다 하는 행동에 법도를 읽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즉 이 책은 立敎(가르침을 세움), 明倫(인륜을 밝힘), 心術(마음가짐의 요긴한 점), 威儀(바른 몸가짐의 법칙), 衣服(옷입는 법도), 飲食(음식의 절도)에 이르기까지 다 사소한 예절을 갖추어 놓은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아정은 사람들이 사소한 예절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올바른 도리에 어긋난다고 단정한다.

그런데 예절교육의 초점은 인륜을 가르침에 있다. 예절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할 올바른 도리로서 인륜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인륜의 핵심적인 내용은 효제충신과 예의염치이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오직 孝悌와 忠信, 禮義와 廉恥를 알고 실행하는데 힘쓰야 한다.(교습: 3)

아정에 있어서 인륜은 예절을 익힘으로써 함양된다. 이것은 유교 일반의 교육내용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 ‘동규’편에는 특히 어른공경과 그 구체적 예법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부모, 스승, 노인, 년장자, 손님 등의 어른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매우 중요시 된다. 아정의 아동교육은 예절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어서 독서교육을 살펴본다.

논자(1991, p.6)는 선비교육을 논하면서 아정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四書’에 이어서 공부할 책으로 ‘後四書’를 제안한 것은 중국고전 의존에서 한국

7) ‘不矜細行終累大德’(『서경』).

의 유학교육이 진일보한 의의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서 후사서란 『격몽요결』, 『소학』, 『근사록』, 『성학집요』를 가리키는데, 이들 가운데 『격몽요결』과 『성학집요』 두권은 율곡의 저서이다. 이 사실은 아정이 율곡의 저서에 높은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격몽요결』에는 낡은 습관을 고치는 데 관한 글이 있고, 『성학집요』에는 그 기질을 바로 잡는데 관한 글이 있고, 『소학』책에는 가르치는 도리에 관한 글이 있고, 『근사록』에는 남을 가르치는 데 관한 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린이들에게 더욱 절실하고 마땅한 것으로서, 다 가히 뜻을 더하여 힘써 행할 것이다.(교습: 34)

사서와 후사서를 중심으로 글을 읽되 아동은 ‘통달한 선비’가 되기 위하여 어려서 부터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경서와 史書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통하게 되도록 어려서부터 책을 사랑하고 글공부에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배울 책으로 중요한 것으로는 『훈몽자회』(교습: 19)⁸⁾ 「백록동규」⁹⁾와 「숙흥야매장」(교습: 22)¹⁰⁾, 『해동가언선행』(교습: 33)¹¹⁾ 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아정의 아동교육은 조기교육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백과전서적으로 방대한 지식획득하려는 주지주의 교육에 연결된다.

어릴 때 능히 六甲, 구구법, 世系 國호 등 여러 名數를 자세히 기억하지 않으면, 자라서는 더욱 거칠고 어리석게 된다. 심지어는 오장육부의 이름이나 오곡의 차례 및 경서와 史書의 편명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 까지 있는데, 이는 제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 옛날의 어린이 교육은 먼저 사물의 이름 글자를 가르쳤다.(사물: 1)

아정의 아동교육론에서는 안전교육과 위생교육의 내용이 이채를 띤다. 먼저 위생에 대한 올바른 습성의 형성을 위해 아정은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 풍부한 내용들 가운데는 지금에 와서는 알맞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많다. 여기에는 이딱기(동지: 17), 담배

8) 중종 때 崔世珍이 지은 것으로서 한자 3,366자의 음과 뜻을 달아 놓은 책이다.

9) 송나라 朱子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설정한 白鹿洞書院學規를 가리킨다. 五教之目, 窮理之要,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 등에 대해서 다루었다.

10) 당나라 陳栢이 지은 글이다. 이 글은 이황의 「성학집요」에서도 발견된다.

11) 俞直基가 우리나라 선현들의 가언과 선행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사물: 8), 맵고 짭 반찬(사물: 15, 동지: 8) 밤참먹고 눕기(사물: 14), 방안청소(사물: 16) 등에 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정은 아동에게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여 관련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보리까끄라기 입에 물기와 꽃향기 맡기(사물: 23), 활과 화살 및 화약놀이(사물: 18), 땅위에 글씨쓰기(사물: 17), 화로 및 등잔 앞 불장난(사물: 24, 26), 눈싸움과 얼음지치기(사물: 22), 말총 뽑기와 미친개 놀리기(사물: 19), 연날리기와 팔랑개비 놀이(사물: 9), 칼, 도끼, 망치, 끌 등의 장난(동지: 25) 등의 위험에 지적되고 있다.

아정의 보전위생교육은 충분히 훌륭하지만, 안전교육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안전에의 강조는 과도한 독서 교육과 합세하여 아동의 신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 경우의 안전교육은 금지일색의 통제가 되어 아동의 다양한 경험과 창조적 자기표현을 통한 교육적 잠재력 발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2) 교육방법

유봉호(1975, pp.139-143)는 이덕무의 아동교수법을 여덟 가지로 세분하였다. 이들은 개인화, 자발성, 스몰스텝, 연습, 조기교육, 노작, 중용, 발전적 계열 등의 원리로서 오늘날 교수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분화의 근거와 원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비판없이 산만하게 나열한데 그치고 있다. 더우기 우리 것을 그대로 옹호하고 여기에 서양의 교육이론을 성급하게 직접적으로 적용시킨다. 여기서 논자는 아정의 교육방법에서 체벌의 필요성과 근거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방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어린이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먼저 마음가짐을 公明하게 하고 학업을 正大하게 하도록 인도한다.(교습: 1)

아정은 체벌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체벌의 근거는 어디에 두는가? 아동교육의 표준은 선비됨에 있다. 이 목적은 구체적으로 ‘좋은 기상’(동지: 14), ‘어질고 착한 버릇을 기르기’(동지: 7), ‘어린이의 버릇을 바로잡기’(교습: 35), ‘정직하고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함’(동지: 33), ‘부모를 속이지 않는 사람’(교습: 16), ‘공명정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동지: 2)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아동이 보여주는 언행과 습성의 수준은 이와 같은 표준에 비해서 거리가 멀다. 아정은 대체로

어린이의 기질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한다. 어린이를 ‘경솔하고 수선스럽고 들뜨고 천박한 버릇이 많아 온갖 행실이 완전하지 못하고 온갖 일이 굳건하지 못함’(동: 2), ‘놀이만을 좋아 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함’(동지: 35), ‘말을 급하게 하고 걸음을 빨리함’(동지: 3), ‘책을 읽으면서 제대로 안읽고 속이는 버릇’(교습: 23), ‘부모를 속이는 사람’(교습: 16), ‘용모가 단정치 못하고 말이 예절이 없으며 행동이 경솔하고 천박하여 그대로 고질적인 버릇을 이룸’(동지: 39) 등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여기서 체벌의 이유는 자명하다. 즉 경솔한 점은 바로 잡아 주고 게으른 점은 깨우치기 위함이다. 체벌하는 근거는 선비를 만드려는데 있다.

자제들의 우열을 매기자면 어릴 때 가르침을 정성껏 지켜서 꾸지람과 종아리를 맞지 않는 것이 첫째이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어 어른이 벌을 주면 피가 흐르더라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감동하고 뉘우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두려워하며 꾸지람을 듣고 종아리를 맞을 까닭을 생각하고 조심하고 삼가하여 두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둘째이다. 세째로 가장 나쁜 것은 자신에게 큰 잘못이 있으면서도 어른의 꾸지람과 벌에 승복하지 않고 사나운 성질을 마구 부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여 스스로 훌륭한 체하고 어른에게 거역하여 노여움을 도발해서, 그를 마구 때려 은혜와 의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는 죄를 범하여 벌을 받게 될 때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승복하면서 다시는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우선 심한 다스림을 모면하고서는 뒤에 다시 이와 같이 하고 여러번 벌을 받아도 끝내 잘못된 마음을 고치지 않는 자는 역시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교습: 9)

아정은 어려서부터 본받을 표준이 있어야 자라서 잘못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부모와 스승은 좋고 나쁜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정은 율곡이 제시한 「小兒須知」¹²⁾에서 밝힌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교습:

12) 이것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조목으로서 모두 열일곱 가지이다; (1) 교훈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다른 일에 쏟는 것. (2) 부모가 시킨 일을 곧 시행하지 않는 것. (3) 형과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말을 포악하게 하는 것. (4) 형제끼리 우애하지 않고 서로 다투는 것. (5) 음식을 서로 다투고 사양하지 않는 것. (6) 다른 아이들을 침해하고 업신여겨 서로 다투는 것. (7) 서로 경계하는 뜻을 받아 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노여워하는 것. (8) 두손을 단정하게 마주 잡지 못하거나 옷소매를 풀어헤치고 한쪽 다리에 의지하여 기대서는 것. (9) 걸음걸이를 경솔히 하여 뛰어 다니고 넘어 다니는 것. (10) 실없는 농담을 좋아하고 말과 웃음소리가 시끄러운 것. (11) 아무런 이로움이 없고 관계없는 일을 하기 좋아하는 것. (12)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게을러서 책을 읽지 아니하는 것. (13) 글을 읽을 때 서로 돌아보며 잡담하는 것. (14) 방심하고 혼매하여 앉아서 조는 것. (15) 나쁜 점을 두둔하고 잘못을 감추며 말이 진실하지 않은 것. (16) 한가한 사람과 잡담하기를 좋아하며 공부를 하지 않는 것. (17) 초서와 난필을 즐겨 종이를 더럽히는 것.

18) 여기서는 행동규범에 대한 법칙이 가벼운 경우에 3번으로 무거운 경우는 단 1번으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정의 아동교육론에서 체벌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그 또한 울곡처럼 잘못의 경중에 따라 알아 듣기 쉽게 주의시키고 호되게 꾸짖거나 매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어린이가 아무리 둔하더라도 참고 견디어야 하며, 비록 과실이 있다라도 함부로 꾸짖거나 마구 때리지 않는 분별심의 발휘이다.(사전의 어하: 4-7) 따라서 나무라게 되더라도 먼저의 과오를 열거하여 꾸짖거나, 여지없이 끊는 말(예컨대 ‘쫓아 버린다’느니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남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함부로 체벌하면 어린이의 신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 분별심이 없다면 그동안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미덥지 못하게 되고 위엄도 또한 퍼지지 않게 된다. 즉 교육적 효과가 없어진다. 따라서 아정은 ‘비록 회초리로 때리더라도 위엄과 사랑을 병행하라’는 결론을 내린다. 실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는 교육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방법적 원리로서 적절한 관점으로 평가된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엄하게 단속해서는 안된다. 엄하게 단속하면 기백이 약한 아이는 겁을 먹고 기질이 강한 아이는 분한 생각으로 원망한다. 너그럽게 놓아두어서도 안된다. 너그럽게 놓아두면 뜻이 웅졸한 아이는 게을러지고 기질이 강한 아이는 방종해지며 능멸하는 마음이 생긴다.(사전의 교습: 45)

너무 엄하면 사나운 자식은 떠나가게 되고 너무 사랑하면 교활한 자식은 방자하게 되니, 남의 아버지가 된 자의 도리는 엄함과 사랑의 중간을 취해야 한다.
(사전의 어하: 2)

한때 아정은 부모의 부탁을 받아서 직접 수십명의 아이를 가르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실토한다. 그 일을 되돌아 보면서 아정은 부모들의 무분별한 익애가 큰 문제임을 지적한다.(사전의 교습: 48)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사랑 또한 생각없이 행하는 체벌과 다름없이 자녀교육을 그르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아정의 교육방법론이 체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등의 인륜을 함양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논한다. 첫째로 시를 노래함으로써 의지를 발달시키고, 둘째로 예절을 익혀서 위엄있는 자세를 지니고, 세째로 글을 가르침으로서 지각을 계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습: 3-4) 인

문을 가꾸기 위하여 시를 노래하는 첫째 방법과 예절을 익히는 둘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으로서 ‘분단지도’를 제안한다. 그리고 글을 가르치는 세째 방법을 위한 접근으로서 ‘개별지도’를 제안한다.

먼저 분단지도란 아동을 세 분단으로 나누어서 발표와 시범에 참여하거나 경청 또는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동적인 전통교육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학생들의 토론과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과에 있어서 학생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세반으로 나누어 매일 한반씩 돌아가며 시를 노래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자리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듣게 한다.(교습: 4)

또한 앞서 시를 노래할 때와 같이 학생들을 세반으로 나누어서 날마다 한 반씩 돌아가며 예절을 익히고, 나머지는 다 자리에 앉아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보도록 한다.(교습: 5)

그리고 개별지도란 글공부에서 어린이의 재능과 이해수준에 맞추는 방법을 가리킨다. “중등 이하의 사람에게는 높은 것을 말할 수 없다”¹³⁾는 말에 의거하여 아동에게는 번거롭게 말하지 말고, 적은 분량을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아정은 그 자질을 헤아려 200자를 배울 수 있더라도 다만 100자만 가르쳐 주어 항상 정신과 역량에 여유를 갖게 한다면, 공부하기 싫어할 염려가 없고,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임을 역설한다.(교습: 6) 그리고 글읽기는 다독과 정독주의로 나가야 한다.(교습: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글공부는 먼저 개인적 자질에 따라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어린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때에는 많은 분량을 가르쳐주는 것은 절대 금기다. … 마치 약한 말에 무거운 짐을 실은 것과 같으니 어찌 멀리 갈 수가 있겠는가? 글의 분량을 적게 해서 충분히 읽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사전의 교습: 44)

13) ‘中人以下, 不可以語上’(『논어』, 용야장: 21).

IV. 맺 음 말

우리는 흔히 교육현상의 이해와 교육문제의 해결의 원리를 서양에서 도입된 이론적 시각을 활용한다. 우리의 조상들이 고민하고 찾아낸 교육의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사실상 서양의 그것보다 더 생소하고 아득하게만 느낀다. 서구적 교육관을 활용한다면 무슨 잘못이 있으랴. 잘못은 우리의 심층적 교육의식에 자리잡고 있을 아동관과 교육적 사고에 거의 무지한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서구이론을 적용하기에 급급한 데 있다. 이런 견지에서 조상들이 지녔던 아동관과 그 교육론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통적 교육관이 무조건 적절하지도 않고 정당화된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이었고 오늘의 교육개선을 위한 반성의 기초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 아정 이덕무의 교육정신을 탐구함도 우리의 교육적 사고의 길을 찾아 보려는 접근가운데 하나이다.

아정은 우리에게 아동을 보는 독특한 시각과 그에 따른 교육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아정은 아동의 성향과 습관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잘 보여준다. 경박함, 놀기 좋아함, 욕심냄, 속임 등이 그것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아동관으로 순자의 성악설과 일맥상통한다. 둘째로 아정의 아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선비이다. 그는 선비된 정신을 어짐, 식견, 중용, 굳셈, 진실함, 자립심 등에서 구한다. 세째로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아동관에 더하여 아정은 예절을 교육내용으로 강조한다. 그의 예절교육은 사소한 행실에 초점을 두고 인륜의 함양을 도모한다. 인륜을 가르치는 예절교육은 주로 어른에 대한 공경이 강조된다. 네째로 아동이 읽어야 할 책은 백과전서적으로 방대하다. 사서와 후사서를 비롯하여 『훈몽자회』, 『백록동규』, 『숙흥야매장』, 『해동가언선행』 등은 독서교육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로 보건위생 및 안전의 내용 또한 아정의 아동을 위한 교육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서 가치보다 교육이념인 선비의 자세와 관련하여 강조된다. 여섯째로 아정은 버릇을 바로 잡고 선비를 만든다는 근거에서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위엄을 병행할 수 있는 분별력이다. 일곱째로 인륜을 함양하는 방법에는 시를 노래하기, 예절 익히기, 글 배우기 등 세가지가 있다. 여기서 아정은 개별지도와 분단지도가 효율적임을 주장한다.

아정의 아동관과 교육론에는 몇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로 아동의 본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 그는 철학적 수준에서 검토하기보다 대체로 유교 일반의 인성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아동교육에 적용하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로 어린이의 시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아동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아동교육과 성인교육이 혼동되거나 아동행동이 어른의 기준에서 기대되기 쉽다. 셋째로 아동교육이 남아중심적이다. 여자아이의 독특한 성향에 대한 검토와 동등한 교육적 배려가 아쉽다. 이 경우 여성교육은 남성교육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넷째로 아동교육이 예절중심적이다. 문제는 예절교육 그 자체에 있다가 보다 예절범절을 과도하게 중시함으로써 비롯되는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불균형에 있다. 예를 들면 신체적 활동과 자유로운 표현의 교육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다섯째로 놀이의 악습에만 주목하고 그 교육적 의의가 간과하고 있다. 아동교육에서 놀이는 반드시 공부의 반대로 보기 어렵다.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놀이는 공부와 상보적인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정의 아동교육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적 균형 감각을 위해 도움을 준다. 특히 그의 체벌관은 교육실천적으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그것은 사랑과 위엄의 조화라는 교육적 전망을 제공한다. 유태인의 교육적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자녀교육의 길이 가까이 아정으로부터 쉽게 발견된다. 또한 아정의 아동교육론에서 인간교육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그는 실학자로서 결코 공리주의적 효율성만을 지향하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 그의 실학교육사상은 ‘후생’보다 ‘정덕’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실용적 과거준비 보다 선비됨의 길을 아동교육의 이념으로 삼고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孔子, 표문태 옮김(1973), 『논어』, 서울: 현암사.
- 김윤환(1991), 『어린이 예절』, 서울: 현대미디어.
- 김태오(1991), “아정의 선비관과 그 교육방안”, 『교육대학원 논문집』, 제23집, 경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pp.1-10.
- 孟子, 안병주 등 옮김(1973), 『맹자』, 서울: 현암사.
- 子, 정장철 옮김(1992), 『순자』, 서울: 혜원출판사.
- 유안진(1981), 『한국 고유의 아동놀이』, 서울: 정민사.
- 유안진(1982),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정민사.
- 윤팔중(1967), “속담에서 본 한국인의 아동관”, 『교육학연구』 제5권 제1호, pp.36-46.
- 유원동(1984), 『한국실학연구』, 서울: 정음문화사.
- 이덕무, 김종권 옮김(1983), 『사소절』, 서울: 양현각.
- 이덕무, 김동주 옮김(1986), 『청장관전서』(VI), 서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 이성무(1981), “아정의 이덕무의 교육사상”, 『한국의 교사상』, 서울: 창지사, pp. 131-143.
- 이이, 성낙훈 옮김(1972), 『율곡집』, 한국의 사상 대전집 12, 서울: 동화출판공사.
- 朱子, 박상만 옮김(1972), 『소학』, 서울: 한국교육협회.
- 한기연(1965), “한국의 교육적 예지” ③, 『새교육』 1965. 11.
- Cleverley, J. & Phillips, C. D.(1988), 『Visions of Childhood』, London: Allen & Unwin.
- Osborn, B., 이경우 옮김(1981), 『유아교육의 역사적 고찰』, 서울: 정민사.
- Spodek, B.(1973),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Jersey: Prentice-Hall, Inc.